축

산업 중에서 가장 가격변동이 심하고 예측하기 힘든 업이 양계업이 아닌가 싶다. 육계, 계란, 벼리가격의 변화에 따라 생산량이 줄고, 늘어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현상이 급변한다.

금년 양계업 경기중 두드러지는 현상은 계란계, 육계, 부화업 경기의 호황을 들 수 있는데 부화업 호황에 수반되는 것이 종계보유수수증가와 부화기 증설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지지만 이는 단기적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6개월 이내에 현실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금년 상반기에는 정반대로 불황이 호황을 몰고온 한해로 작년도 산란, 육계, 부화업의 불황으로 인해 생산조건이 이루어진 전반적인 양계업 호황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양계업 호황은 긴게 가기가 어렵고 생산증가가 용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심을 해야 하겠다.

이런 추면에서 3/4분기 양계업 전반에 걸쳐 경기전망을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양계외인 소가연의 변화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게 나타나므로 지속적인 통계자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계란전망: 계란생산 부족으로 호황 계속 유지

금년 2/4분기까지 예상대로 계란시장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았다. 3/4분기 또한 이런 분위기의 이어질 공산이 크다.

먼저 호황으로 이론 원인과 지급까지 나타난 현상을 제조명하는 것이 향후 계란값 전망이나 입주계획에 참고가 될 것이다.

첫째, 부유수수증가로 인한 계란값 폭락이다. 이는 '88년 계란값 호황으로 인해 벼리가격이 좋아 P.S의 인식을 증가시키고 또한 G.P.S의 보유수수도 증가하였다. 자연적으로 계란생산량의 폭등은 3~4년전인 '87, '88년에 불황을 자초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특대란 시세 차가 커져 환율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환율이 원이 품종이 인기있는 시기가 있었을 정도로 불황은 점점 심어진 것이다.

둘째, 불황으로 인한 절멸발생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전국적 인 절멸피해가 크게 나타날 때는 불황과 같이하는 특징을 가진다. 물론 단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한 관리소홀, 적자로 인한 백신 미접종, 환우계의 증가등 절멸에 도출되어 2종 3종의 피해를 입게 된다.

셋째, 종란 이용을의 저하로 벼리 생산이 급격히 감소한다. 물론 이 시기의 생산감소율은 어느해보다 높은 것이 특징이지만 양
表 1. 산란계 사육수수 현황
(단위: 천수)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월별날별</th>
<th>3~6개월령</th>
<th>전체원수</th>
</tr>
</thead>
<tbody>
<tr>
<td>3월</td>
<td>'87</td>
<td>5,501</td>
<td>29,506</td>
</tr>
<tr>
<td></td>
<td>'88</td>
<td>4,846</td>
<td>33,590</td>
</tr>
<tr>
<td>6월</td>
<td>'87</td>
<td>6,177</td>
<td>30,231</td>
</tr>
<tr>
<td></td>
<td>'88</td>
<td>5,746</td>
<td>33,833</td>
</tr>
</tbody>
</table>

계능가의 입식 능력이 떨어져 땅에 묶는 벼리가 발생하거나 석란처분으로 부화장이 가정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된다.

넷째, 생산자의 자세도 문제다. 양계업자는 산물세션만 좋으면 1년후의 경기를 무시하고 무조건 벼리 임식하고만 자세가 항상 뒤항을 초래하고 그 후유증으로 호흡을 맺는 불행한 현상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이러한 조짐이 서서히 보이고 있는 듯하다.

앞에 열거한 사항들은 호흡일 때 대비할 수 있는 마을 가정이 중요하다라 생각된다.

본론으로 3/4분기 계란시세는 아직 작년 불황의 후유증이 완전히 가시지 않아 계란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상반기 보다는 마치 못하였지만 생산비전을 크게 옮는 호흡이 지속되려 여겨진다.

표 1)에서 나타났듯이 계획을 다가 속도가 곧바로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금년 연말경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연도별 초성추 사료 생산량 및 실용계 벼리이 생산 추정수수
(단위: 천수)

<table>
<thead>
<tr>
<th>구분</th>
<th>초성추 사료생산량</th>
<th>벼리이 생산수수</th>
</tr>
</thead>
<tbody>
<tr>
<td></td>
<td>'87</td>
<td>'88</td>
</tr>
<tr>
<td>1</td>
<td>2,527</td>
<td>2,957</td>
</tr>
<tr>
<td>2</td>
<td>3,191</td>
<td>2,990</td>
</tr>
<tr>
<td>3</td>
<td>5,027</td>
<td>4,812</td>
</tr>
<tr>
<td>4</td>
<td>5,812</td>
<td>5,183</td>
</tr>
<tr>
<td>5</td>
<td>4,930</td>
<td>4,365</td>
</tr>
<tr>
<td>6</td>
<td>4,230</td>
<td>3,120</td>
</tr>
<tr>
<td>7</td>
<td>4,120</td>
<td>2,448</td>
</tr>
<tr>
<td>8</td>
<td>4,497</td>
<td>2,675</td>
</tr>
<tr>
<td>9</td>
<td>4,861</td>
<td>3,212</td>
</tr>
<tr>
<td>10</td>
<td>4,696</td>
<td>3,446</td>
</tr>
<tr>
<td>11</td>
<td>3,653</td>
<td>3,730</td>
</tr>
<tr>
<td>12</td>
<td>3,665</td>
<td>3,342</td>
</tr>
<tr>
<td>계</td>
<td>51,209</td>
<td>42,281</td>
</tr>
</tbody>
</table>

표 2)의 초성추사료와 사료에 의한 벼리이생산 수수를 추정해 보면 88년은 87년에 비해 81% 수준으로 임추수수가 크게 감소하였 다, 이것은 보아 금년 3/4분기에도 계란생산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성추사료의 비중으로 감소폭이 컸으며 금년 들어서는 폭폭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겠다.

앞의 자료로 보아 계란생산량의 증가는 향등작과 2/4분기처럼 계란값이 큰폭으로 인상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량당화로 인한 시세하락은 없을 듯하다.

그러나 경기를 낙관한 나머지 환우를 실시하는 농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연초에 임식된 계군의 산란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

表 3. 벼리이 생산잠재량
(단위: 천수)

<table>
<thead>
<tr>
<th>월별</th>
<th>연도별</th>
<th>'88</th>
<th>'89</th>
</tr>
</thead>
<tbody>
<tr>
<td>1</td>
<td>3,444</td>
<td>2,740</td>
<td></td>
</tr>
<tr>
<td>2</td>
<td>3,537</td>
<td>2,615</td>
<td></td>
</tr>
<tr>
<td>3</td>
<td>3,429</td>
<td>2,656</td>
<td></td>
</tr>
<tr>
<td>4</td>
<td>3,410</td>
<td>2,514</td>
<td></td>
</tr>
<tr>
<td>5</td>
<td>2,941</td>
<td>2,399</td>
<td></td>
</tr>
<tr>
<td>6</td>
<td>2,810</td>
<td>2,442</td>
<td></td>
</tr>
<tr>
<td>7</td>
<td>3,008</td>
<td>2,580</td>
<td></td>
</tr>
<tr>
<td>8</td>
<td>3,082</td>
<td>2,702</td>
<td></td>
</tr>
<tr>
<td>9</td>
<td>2,973</td>
<td>2,799</td>
<td></td>
</tr>
<tr>
<td>10</td>
<td>2,890</td>
<td>2,692</td>
<td></td>
</tr>
<tr>
<td>11</td>
<td>2,718</td>
<td>2,540</td>
<td></td>
</tr>
<tr>
<td>12</td>
<td>2,753</td>
<td>2,765</td>
<td></td>
</tr>
<tr>
<td>계</td>
<td>36,995</td>
<td>31,444</td>
<td></td>
</tr>
</tbody>
</table>

*P.S. 임식에 의한 실용계 벼리이 생산잠재량 추정치임.

여 7월 중순 이후 8월초 찍 죽 산복증
다소 악세가 예상되며 기온이 낮아지는 8월 중순 이후 재료값은 회복세에서 추세이전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보이겠다. 8/4분기 말 이후 벼아리 입식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표 3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88년도 실용계 생산량이 65% 정도에도 못미치는 생산수수율 적었으나 급년들어 벼아리값의 호황으로 잡채역과 더 활선 옵도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89년 5월까지 P.S. 임식수수에 의한 잡채역을 추정해 보면 12,924t수로 사료에 의한 실제 생산수수율 추정한 15,359t수보다 18%를 초과하여 생산하였고 항후 벼아리 값에 따라 생산이 크게 좌우되며 명심해야겠다.

육계전망 : 발목 이후 육계물 황조집

'88년 상반기 육계시기에 육계물 황조집으로 예상되었으나 2월말 고정 이후 하방권으로 시작해 5월 말까지 생산비율을 잃었던 시기, 지배되고 고전했다.

표 4. 연도별 빚발

<table>
<thead>
<tr>
<th>연도</th>
<th>발발월별</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87</td>
<td>1,002 726 816 880 972 816 869</td>
<td></td>
</tr>
<tr>
<td>88</td>
<td>947 651 712 682 747 646 781</td>
<td></td>
</tr>
<tr>
<td>89</td>
<td>1,363 900 825 803 779 900 944</td>
<td></td>
</tr>
</tbody>
</table>

표 5. 육용 실용계 잡채력 (단위: 천개)

<table>
<thead>
<tr>
<th>월별</th>
<th>'87</th>
<th>'88</th>
<th>'89</th>
</tr>
</thead>
<tbody>
<tr>
<td>1</td>
<td>16,208</td>
<td>21,597</td>
<td>22,532</td>
</tr>
<tr>
<td>2</td>
<td>17,088</td>
<td>22,637</td>
<td>23,373</td>
</tr>
<tr>
<td>3</td>
<td>17,931</td>
<td>23,710</td>
<td>24,283</td>
</tr>
<tr>
<td>4</td>
<td>19,003</td>
<td>24,983</td>
<td>25,258</td>
</tr>
<tr>
<td>5</td>
<td>19,854</td>
<td>25,471</td>
<td>25,477</td>
</tr>
<tr>
<td>6</td>
<td>20,108</td>
<td>24,665</td>
<td>22,321</td>
</tr>
<tr>
<td>7</td>
<td>19,050</td>
<td>22,022</td>
<td>23,191</td>
</tr>
<tr>
<td>8</td>
<td>17,962</td>
<td>21,192</td>
<td>20,542</td>
</tr>
<tr>
<td>9</td>
<td>17,612</td>
<td>19,813</td>
<td>18,845</td>
</tr>
<tr>
<td>10</td>
<td>17,946</td>
<td>19,618</td>
<td>19,087</td>
</tr>
<tr>
<td>11</td>
<td>17,162</td>
<td>20,824</td>
<td>20,072</td>
</tr>
<tr>
<td>12</td>
<td>20,337</td>
<td>20,082</td>
<td>20,125</td>
</tr>
<tr>
<td>총합</td>
<td>220,261</td>
<td>256,614</td>
<td>265,106</td>
</tr>
</tbody>
</table>

آلاج فحص الأفق لحم المشروم: في المستقبل، في حالة أن نلاحظ أن ألفية قد تتأثر بشكل كبير

4월 들어 육계값 회복세를 보이면 확정이 지속되며 여건에 보였으나 다가가 일찍 찾아와요.
표 6. 벼리아 시계현황

<table>
<thead>
<tr>
<th>구분</th>
<th>1</th>
<th>2</th>
<th>3</th>
<th>4</th>
<th>5</th>
<th>6</th>
<th>7</th>
<th>8</th>
<th>9</th>
<th>10</th>
<th>11</th>
<th>12</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산</td>
<td>87</td>
<td>423</td>
<td>442</td>
<td>445</td>
<td>450</td>
<td>441</td>
<td>416</td>
<td>419</td>
<td>421</td>
<td>412</td>
<td>398</td>
<td>388</td>
<td>349</td>
</tr>
<tr>
<td>러</td>
<td>88</td>
<td>358</td>
<td>397</td>
<td>406</td>
<td>394</td>
<td>382</td>
<td>359</td>
<td>355</td>
<td>357</td>
<td>393</td>
<td>416</td>
<td>395</td>
<td>441</td>
</tr>
<tr>
<td>유</td>
<td>89</td>
<td>533</td>
<td>545</td>
<td>551</td>
<td>560</td>
<td>544</td>
<td>49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류</td>
<td>87</td>
<td>190</td>
<td>206</td>
<td>259</td>
<td>301</td>
<td>329</td>
<td>348</td>
<td>331</td>
<td>175</td>
<td>138</td>
<td>108</td>
<td>202</td>
<td>157</td>
</tr>
<tr>
<td>유</td>
<td>87</td>
<td>222</td>
<td>289</td>
<td>231</td>
<td>123</td>
<td>149</td>
<td>166</td>
<td>150</td>
<td>212</td>
<td>272</td>
<td>260</td>
<td>338</td>
<td>248</td>
</tr>
<tr>
<td>유</td>
<td>89</td>
<td>362</td>
<td>350</td>
<td>276</td>
<td>340</td>
<td>256</td>
<td>37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표 7. 육용 PS 입식현황

<table>
<thead>
<tr>
<th>구분</th>
<th>'87</th>
<th>'88</th>
<th>'89</th>
</tr>
</thead>
<tbody>
<tr>
<td></td>
<td>계</td>
<td>계</td>
<td>계</td>
</tr>
<tr>
<td></td>
<td>국산</td>
<td>수 입</td>
<td>국산</td>
</tr>
<tr>
<td>1</td>
<td>107,500</td>
<td>131,500</td>
<td>85,386</td>
</tr>
<tr>
<td>2</td>
<td>160,300</td>
<td>168,391</td>
<td>139,600</td>
</tr>
<tr>
<td>3</td>
<td>195,000</td>
<td>289,266</td>
<td>252,535</td>
</tr>
<tr>
<td>4</td>
<td>222,100</td>
<td>257,400</td>
<td>210,198</td>
</tr>
<tr>
<td>5</td>
<td>240,250</td>
<td>198,910</td>
<td>198,910</td>
</tr>
<tr>
<td>6</td>
<td>202,300</td>
<td>232,000</td>
<td>232,000</td>
</tr>
<tr>
<td>7</td>
<td>280,726</td>
<td>297,510</td>
<td></td>
</tr>
<tr>
<td>8</td>
<td>269,150</td>
<td>176,050</td>
<td>22,200</td>
</tr>
<tr>
<td>9</td>
<td>239,930</td>
<td>240,572</td>
<td>240,572</td>
</tr>
<tr>
<td>10</td>
<td>203,360</td>
<td>197,262</td>
<td>13,500</td>
</tr>
<tr>
<td>11</td>
<td>103,530</td>
<td>111,278</td>
<td>111,278</td>
</tr>
<tr>
<td>12</td>
<td>126,508</td>
<td>108,518</td>
<td>108,518</td>
</tr>
<tr>
<td>계</td>
<td>2,352,654</td>
<td>2,408,657</td>
<td>63,700</td>
</tr>
</tbody>
</table>

현재의 상황에서 보아 백밀 이전보다는 복작기의 원전 나름 것마당 예가가 든다. 이는 예년에 불 수 없는 현상으로 복작마이 생산이 과다하는 시점과 동시에 도경도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30-40%의 복작마이 감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금년도는 오히려 용량부족으로 소계감이 과도하고 계속 복작 마이가 40원을 유지하는 상황만 보더라도 복작마이 감축이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육계재의 강세로 인한 복작마이의 일어질 조건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복작마이 생산을 계속하게 됨에 따라 백밀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시점의 복작마이 물량으로는 불럼없이 과잉이 될 수 밖에 없음이 이다.

이런 측면에서 금년 삼복은 특별한 경제적 제약이 없으면 기대해 볼적이지만 생산비가 예년에 비해 월등히 높고 세미출하의 부담이 주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감을 일으키며 복작마이의 감축을 겪은 말과 버리려는 어려움을 감에 복작마이의 양과 목격을 드리워지게 됨.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금년내에 퇴바람이 가시기까지 어려기 때문에 외화의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진 기대를 갖고 않 을 하는 것이 별로 이상한 것이며로 절대 절벽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부화업 경기: 채란부화 호황 지속, 육계부화 8월말 불 황전망

부화업 경기는 상반기에 상상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고 후반기에도 다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호황의 원인을 규명해 보면 산란부화와 육계부화가 그 특징을 가진다.

산란부화 부화는 작년도 낙가호황 으로 인한 입추수수가 줄어 입추 여력이 많고 또한 사육수수의 격 장으로 난가가 회복되어 염기의 고조를 드는 수 있고 육계부화는 부화업계 스스로의 생산조정과 작년도 육계업체의 호황으로 인한 입 추업기의 상승과 신규업체의 출현 으로 백미 수요가 증가한 반면 공급량이 다소 부족한 탓에 값의 호황을 맞은 것은 같다.

3/4분기 백미가 육계가 작년 후반기 이후 종계업체수수가 감소하여 생산량계외 측면에서 7월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추세로 보이고 백미 백미 이후 노계도 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볼 때 불량증가는 더욱 가속되어 8, 9월 단락은 약세간에서 형성된 것
## 표 8. 산란용 종계(P.S) 임식현황

<table>
<thead>
<tr>
<th>구분</th>
<th>'87</th>
<th>'88</th>
<th>'89</th>
</tr>
</thead>
<tbody>
<tr>
<td></td>
<td>계</td>
<td>국산</td>
<td>수입</td>
</tr>
<tr>
<td>1</td>
<td>28,175</td>
<td>51,968</td>
<td>51,968</td>
</tr>
<tr>
<td>2</td>
<td>29,255</td>
<td>21,500</td>
<td>21,500</td>
</tr>
<tr>
<td>3</td>
<td>19,160</td>
<td>10,077</td>
<td>6,000</td>
</tr>
<tr>
<td>4</td>
<td>23,350</td>
<td>12,920</td>
<td>15,000</td>
</tr>
<tr>
<td>5</td>
<td>65,660</td>
<td>63,624</td>
<td>2,000</td>
</tr>
<tr>
<td>6</td>
<td>82,500</td>
<td>30,725</td>
<td>7,700</td>
</tr>
<tr>
<td>7</td>
<td>39,580</td>
<td>8,325</td>
<td>8,325</td>
</tr>
<tr>
<td>8</td>
<td>35,100</td>
<td>6,120</td>
<td>35,824</td>
</tr>
<tr>
<td>9</td>
<td>4,500</td>
<td>2,885</td>
<td>2,885</td>
</tr>
<tr>
<td>10</td>
<td>15,000</td>
<td>23,952</td>
<td>23,952</td>
</tr>
<tr>
<td>11</td>
<td>49,900</td>
<td>49,372</td>
<td>49,372</td>
</tr>
<tr>
<td>12</td>
<td>53,137</td>
<td>50,900</td>
<td>4,680</td>
</tr>
<tr>
<td>계</td>
<td>445,317</td>
<td>332,388</td>
<td>71,204</td>
</tr>
</tbody>
</table>

같이 병아리값도 육계값, 여파로 인하여 하락세가 예상된다.

P.S 임식은 작년도 G.P.S 임식수수가 많지 않아 생산성이 좋지 않아 5월까지 1,028,224수가 임식되어 전년도에 비해 4.2%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적정수수 임식되는 것으로 추측되며 후반기의 P.S 생산수수도 G.P.S도 임수수로 보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내년도에 파업 생산설계 소지도 많다.

산란계는 계란값의 호황으로 임식 열기 고조로 병아리값은 3/4분기 강세가 예상된다. 그러나 설용계 생산추세는 1, 2월 P.S 임식이 큰폭의 증가추세를 보여 7, 8월 생산에 가남합에 따라 큰폭의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5월까지의 P.S 임식수수는 252,464수로 전년도에 비해 38%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후반기 P.S 임식의 자체가 요구되며 특히 내년도 계란계의 폭락도 예상되어 더욱더 생산조절에 힘써 난가 안정에다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

---

*산란중추위탁 사육 및 판매
중추육성 전문농장

봉래농장

충남 아산군 익봉면 산동리 12-1  
☎(02)511-0038, (0417)63-8402

119